

# 재난은 이미 닥쳐왔고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윌러스 웰스 지음·김재경 옮김



‘지구의 날’이 언제인지 아는 독자들이 얼마나 될까? 코로나 19 사태를 비롯해 지구촌 소식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지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을 맞아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은다. 미국싱크탱크 기관의 ‘뉴아메리카’ 연구원 데이비드 윌러스 웰스 가 펴낸 ‘2050 거주불능 지구’는 기후 재난의 실제와 미래를 다룬다. 부제는 제목보다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는 살인적인 폭염부터 반복되는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기후 재난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뉴욕매거진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리포트, 아마존 종합베스트셀러, 과학전문지 네이처 추천도서로 선정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말한다. “절망할 겨를도 없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저자는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평소 자연 친화적으로 삶을 살지도 않는다. 그는 기후 변화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몇 년에 걸쳐 자료와 이야기를 수집했다. 책은 지난 2017년 뉴욕매거진에 기고한 리포트를 상세히 풀어 책으로 엮은 것이다. 공교롭게 리포트가 발표되던 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기록적 한파가 왔으니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다”고 강변했다. 그해 허리케인이 들이닥쳐 사망자가 3000여 명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 문제는 이후 트럼프가 기후 온난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초기의 방심이 큰 화를 불렀다. 지난 12일 기준 미국의 확진자는 55만5313명에 사망자는 2만2020명에 이르렀다. 저자는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감성적 접근은 오히려 기후변화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한계치 400PPM을 넘어 평균 온도는 해마다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2100년까지 1.5도 내지 2도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인류는 2050년 아니 그 이전에 찾아올 끔찍한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 책은 단순히 온도 상승에 따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이미 목전에 닥친 기후변화의 현실을 살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울러 저자는 최신 연구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많은 이들은 오늘의 지구온난화가 오래 전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로 본다. 그러나 대기 중 탄소의 절반 이상은 최근 30년

사이에 배출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말해주듯 재난은 더 이상 한정된 지역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책에서 언급한 재난은 전 지구적 ‘기후 되먹임’ (climate feedback) 시스템 일부로 존재한다. 각 재난이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저자는 2050년이 되면 기후난민이 최대 10억 명이 이르고 여름철 최고 기온이



전 세계 인구 3분의 2에 가까운 40억 명이 매년 적어도 한 달은 물부족 문제에 직면하는 지역에 살고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평균 35도 이상인 도시는 97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로인해 25만5000 명이 폭염으로 죽고 50억 명이 물 부족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재난을 멈추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탄소세 도입, 새로운 방식의 농경기술, 녹색에너지와 탄소포집 기술에 대한 공공 투자 등이 그것이다. <추수밭·1만98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평군 35도 이상인 도시는 97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로인해 25만5000 명이 폭염으로 죽고 50억 명이 물 부족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재난을 멈추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탄소세 도입, 새로운 방식의 농경기술, 녹색에너지와 탄소포집 기술에 대한 공공 투자 등이 그것이다. <추수밭·1만98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마음의 요가 = 간디와 네루의 찬사와 존경을 받는 인도의 영적 지도자 스와미 비베카난다가 8년 동안 미국과 영국 전역을 돌며 전파한 지나나 요가 (Jnanan Yoga, 지혜의 요가)의 가르침을 담은 강연 모음집이다. 마음과 생각으로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을 전하며, 작은 자애 우주적 영혼이 휘둘릴 때 그것을 지혜의 도끼로 끊어 내라고 주장한다. <판미동·1만9800원>

▲말하지 않고 동물과 대화하는 법 = 동물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단계별 입문 가이드북이다. 내 몸과 마음을 다독이고 돌보는 준비 과정부터 실제로 동물과 대화해보는 과정까지, 영국 최초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피 호슬리만의 훈련법을 통해 내 곁에 있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동물,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소통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김영사·1만5800원>

▲어둠의 눈 =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예견한 소설로 한 중국 과학자가 중국의 새로운 생화학무기에 관한 정보가 담긴 플로피 디스크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의문의 사망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크리스티나 에번스가 우한 소재 연구소에서 유출된 바이러스 ‘우한-400’의 비밀에 접근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다산책방·1만6000원> <라온북·1만5000원>



▲스탠퍼드는 이렇게 창업한다 =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스탠퍼드 출신 창업자들의 창업 스토리와 성공 역량을 분석해 스탠퍼드의 성공 노하우를 독자 소개한다. 창업을 꿈꾸고 계획하는 사람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창업가의 라이프 스킴과 부의 공식을 만드는 창업역량을 통해 대한민국 창업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두 그룹에서 기회를 바란다”고 전한다. <라온북·1만5000원>

# 소설가가 인간으로 겪는 삶 이야기 ‘사유록’

## 소설가의 귀속말

이승우 지음



“사람에 대해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사람이 무엇인지 말하는 장르인 소설은 소설가 자신을 피할 수 없다.” 소설가 이승우의 말이다. 그는 ‘소설을 쓰는 것은 거꾸로 하는 스트립쇼다. 알몸으로 무대에 등장했다가 한겹씩 옷을 챙겨 입는 것이 소설쓰기다. 소설가는 자기 자신을 파먹는 존재’라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글을 인용하며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이승우(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펴낸 ‘소설가의 귀속말’은 언제, 어떻게 영감을 받아 글을 쓰는 지, 작가로서 지켜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지 등 ‘소설가로서의 일’에 대한 글과 함께 한 인간으로

겪는 삶의 이야기를 담은 ‘사유록’이다. 지적인 그의 작품처럼 문학, 철학, 종교,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글들은 목직향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그는 해외문학과 당대 고전으로 남은 국내의 작가의 작품들도 조명한다. 귀속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소개하는 카프카의 ‘황제의 전갈’, 허먼 멜빌의 ‘모비딕’,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두 왕과 두 개의 미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뎀불 속’,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 서유미의 ‘당분간 인간’, 다비드 르브르통의 ‘견기 예찬’ 등이다. 특히 ‘예수의 생애’나 ‘침묵’ 등 자주 언급되는 앤드류 슈사쿠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또 자신의 등단작을 심사했고, 소설쓰기에 대한 최초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작품 ‘나무 위에서 잠자기’를 쓴 고(故) 이창준 소설가에 대한 글을 만날 수 있으며 ‘문학의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언급되는 번역에 대한 단상, 고향 장흥 바닷가에서 느낀 감정에 대한 글도 실렸다. 그 밖에 람브란트의 자화상이나, 고흐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 작품 ‘구두 한 켤레’ 등을 통해 소설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풀어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1981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에리직톤의 초상’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생의 이면’ 등 대표작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 번역 출판됐다. 황순원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오영수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은행나무·1만3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청소년 책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 바다 =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인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다. 책은 크릴새우가 많은 남극해, 생물 다양성이 큰 솔라웨시해, 12만5000살이 넘는 해초와 세계에서 가장 큰 생명체인 그레이트베리어리프 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바다 속에 사는 동물들의 그림도 함께 담았다. <풀빛·2만2000원>



▲위로의 초짜 = 키우던 미꾸라지가 죽어서 슬퍼하는 민호를 보고 은수는 위로를 하지도 안하려고 민호의 화를 돋운다. 또 다림질을 하다 실수로 바지를 태운 엄마에게도 은수는 제대로 된 위로를 하지 못했다. 은수는 위로하는 것에 서툰 위로의 초짜다. 책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작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은수를 통해 위로하는 법을 알려준다. <중은책어린이·9500원>



▲내가 하고 싶은 여덟 가지 = 준석이의 꾸밈없고 솔직한 마음이 담긴 글 모음집이다. 준석이는 가슴이 살균제로 인해 한 살 때 폐가 터져 후유증으로 천식을 앓고 있으며, 폐 기능의 약 50%를 잃어 또래보다 몸집이 훨씬 작다. 책에는 준석이가 만들고 싶은 사회에 대한 준석이의 생각이 담겨 있다. 특히 ‘가슴이 살균제로 인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와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갈 사회는 책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주니어김영사·1만2800원>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